

안녕하십니까. 최인규입니다. 사색을 즐기며 문제를 해결하는 쾌거를 동력으로 비교적 느린 걸음의 발전이지만 끊임없이 발자국을 남겨 힘차게 걸어갑니다. 긴 글의 시작에 앞서 기본적인 기술사용 이력을 나열하기보다 저의 이야기를 서술하려고 합니다. 공모전에 수상한 이력이 있는 만큼 기술사용과 문제해결 능력은 어느 신입 개발자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때론 정규화된 방식이 아닌 저만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며 글로써 입사를 지원하는 저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소통과 배움의 길을 찾는 사람

직무효율과도 직결된 협업 과정의 시작에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주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 놓는 것. 개발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개인의 생각을 표출하는 방법을 찾아 소통의 길을 개척하자는 의지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며 함께 아우러지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고 무언가 구현할 수 있는 개발에는 제가 그동안 배운 경영학과 국문학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일전에 800km의 길을 매일매일 조금씩 걸으며 목적지에 도달했던 순례길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어느 길을 가던 같은 목표에 도달하며 자신의 목표만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언젠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일어설 수 있는 끈기와 강력한 목표 의식이 저를 한 걸음씩 전진시켰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 이정표만이 세워져 있음을 그리고 끊임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탈길과 평지, 오르고 내리는 길 여러 가지의 걸음에는 저마다의 경험이 쌓입니다. 배움의 길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처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대에 발맞춰 살아보자는 의지와 더불어 개인의 탐구능력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길을 찾고 걸어가기 위해 개발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무한히 전진

개발을 배우면서 첫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멋진 결실을 보면서 하루의 2/3를 컴퓨터 앞에 코드를 보고 적고 있어도 지치지 않았던 제가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의지의 근간은 어떻게 코드를 짜는지 여러 기술을 연마하려는 방법보다 하나의 코드와 로직도 반복을 거듭하며 더욱 적합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 결과 굼직하고 탄탄하게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저의 개발 이력을 쌓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몇 달을 살았던 저에게 하나에 몰두하며 탐구하는 것이 큰 쾌락이었습니다. 신입 및 비전공자로서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집착과도 비슷한 탐구욕과 효율의 비를 재단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비록 기술적인 연마가 미흡한 현재이지만 앞으로 저는 제가 가진 힘의 가치를 알고 꾸준히 수준을 높여갑니다. 신입으로서 저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수많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탐구욕을 통한 실력증진의 잠재력입니다.

연비가 좋은 인재, 희망찬 미래

저는 아직 고성능, 고비용의 인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으며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고효율의 인재입니다. 포부는 장황한 것이 아닌 회사에 필수적인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갖은 업무에도 지치지 않고 신입의 활기를 직무능력과 연결할 수 있는 사람, 빠르게 스며들어 언제 입사했는지도 모를 적응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유기체적인 활동으로 성장하는 회사에서 필요한 과정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만큼 앞서겠습니다. 늦은 만큼 빠르게 달리겠습니다. 배움에는 헛된 것이 없고 경험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개발자가 되기 위해 길을 걸진 못했지만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에는 제가 걸었던 배움의 길이 그 이정표가 되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